

진안군, 갈색날개 매미충 극성

지나해부터 개체수 크게 늘어 농작물 피해 커

진안지역의 갈색날개매미충은 4~5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나해부터 발생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더니 올해는 발생면적을 산출하지 못할 만큼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커 대책이 요구된다.

사과 등 과수원은 물론 고추, 버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임야의 수목과 가로수, 잡초 등에도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야간 불빛을 따라 움직이는 습성 때문에 주택까지 파고들어 울해와 같은 폭염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갈색날개매미충이 오래 해충이어서 아직까지 천적이 없

고 부화기인 6월의 높은 기온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부화율이 높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 농업관련 기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워낙 발생개체수가 많아 특별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농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산림과에서도 가로수, 임야에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사립이나 가족에는 특별히 질병을 유발하거나 직접적인 주지 않지만 과수나 농작물에는 잎과 줄기의 즙액을 빨아 먹고 끈적끈적한 배설물로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고 있다.



농경지는 어느 정도 농약살포가 가능하지만 산속의 수목은 이마져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농약을 살포하더라도 약효가 떨어지면 인근지역에서 다시 날아와 계속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주민 이모씨(65, 진안읍)는 "농작물 피해도 피해지만 불빛을 보고 방안까지 들어와 방잡을 설치고 있다."며 "특별한 방제대책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기료 폭탄' 걱정 덜 수 있어요

완주군, 1200세대에 태양광 보급... 주민 부담경감·소득제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을 덜고 대신 소득들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완주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완주군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세대는 1198세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의 보급

세대 5536세대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완주군의 경우 2010년 63세대를 시작으로 2011년 70세대, 2012년 108세대, 2013년 336세대, 2014년 322세대, 2015년 209세대 등 꾸준히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전북에서는 최초로 마이크로 태양광(1kw

이하) 및 태양열(7㎡ 이하) 주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의 유형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태양광·세대, 태양열·세대, 지열·세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완주군 지원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한 주민은 자가 발전을 통해 전기료 부담을 덜고, 남은 전기는 팔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 같이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완주군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셈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의회, 국회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현안문제 해결 지원요청

김윤섭 장수부군수와 유기홍 군의회의장, 군의원 등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안호영 국회의원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국가예산 및 중앙공모사업 확보, 장수 풍력발전단지 조성문제, 제10회 장수 한우량 사과량 축제 등 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김윤섭 부군수는 "장수~장계(국도 19호선)간, '임실~장수(국도13호선)간' 국도개량사업에 대한 조속한 착공과 기재부의 심의에서 제외된 말산업 특구지정 사업의 예산반영 등을



김윤섭 장수부군수와 유기홍 군의회의장, 군의원 등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안호영 국회의원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피력했다. 유기홍 장수군의회의장은 장수 풍력발전 단지 조성으로 야기될 환경 파괴와 가아문화 유산 훼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청정장수 이미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군의 발전을 위해 행정과의 소통강화와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지역 파괴와 가아문화 유산 훼손 등에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전안군청 전복산입과
063-430-2951



제10회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서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마음 모아 더 힘차게 뛰자'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황

제10회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지난 19일 무주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들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역량을 키워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살현의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농촌지도자들과 생활개선회, 4-H본부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생활개선회 읍면과 재활동 발표와 개회식, 한마음행사 등에 함께 했으며,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

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생활개선회 정란화 회장은 "우리의 열정 속에서 피어난 땀과 노력이 무주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도 만드는 것"이라며 "특성화, 차별화, 전문화된 무주농업을 위해 더 힘차게 뛰여보자"고 말했다.

이에 황정수 군수는 "늘 깨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어렵다고 하는 농업현실이지만 무주농업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며 "무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주체라는 사명감으로 발전하는 농업인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기로

진안군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민간위탁기관 모집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자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민간위탁 추진배경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환자진단 및 상담 등 예방관리 교육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지원으로 2012년부터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세미나 및 각 체험실이 있는 환경교육관, 친환경 주거체험동, 자연식당과 어린이 놀이터, 축구장, 숲속 체험장 등이 있다. 또한 인근에 전북 아토피 안심학교인 조림초등학교와 부귀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토피 등 환

경성질환자의 상담 및 교육, 아토피 캠프운영, 아토피환자 단기 주거체험, 자연체험 식당운영과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천연염색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유치원과 학교, 청소년단체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도 시설을 이용해 참여자 호응도가 높다.

군 관계자는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료와 예방관리에 대하여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환경성 질환예방을 위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전북권역의 유일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로 2016년 7월 기존의 '진안 에코에듀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성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문우성 과장 '대통령상'

문우성 장수군청 건설과장(사진)이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투철한 공직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문 과장은 안전재난과에서 근무하면서 재해위험시설물 35개소 9억2,000만원,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 2억5,400만원, 급경사지정비사업 6억원 등 국비확보와 위기 전 사업 마무리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들인 문 과장은 투철한 공직관을 갖고 공생할이 타의 귀감이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최용득 군수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읍·면장 및 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6년도 읍지연습 추진계획 보고, UFG 훈련계획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읍지연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2016년 읍지연습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첫째날(22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23일 군청, 현안과제토의, 전시 직제 편성훈련 및 실제훈련 등이 실시되며 제773부대 1대대를 비롯한 장수경찰서, 무진장소방서 등 8개 기관에서 500여명이 훈련에 참가한다.

최용득 의장은 "이번 읍지연습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해 군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 줄 것"이라며 "군민들도 읍지연습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완주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읍지연습에 대비해 완주군 통합방위 주체인 민·관·군·경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제3차 통합방위협의회를 지난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박성일 완주군수, 이재실 제9585부대 제4대대장, 이승길 완주경찰서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5여명이 참석하여 2016읍지연습 계획 보고, 읍지연습 안보동영상 시청, 2016 화랑훈련 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 됐다.

올해 읍지연습은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5개기관 200여명이 참여해 22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폭탄테러에 의한 인명구조와 응급복구 및 화재진압 실제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박성일 의장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안보태세 확립은 물론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3곳 선정

진안군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관내 3개 마을을 선정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근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은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대해 마을단위 서약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2014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히 올해는 각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불법소각을 하지 않고 산불예방에 참여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미려한 방화마을, 부귀면 원두남마을, 동향면 하양지 마을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하여 녹색마을 현판을 전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